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은선경¹, 박효진^{2*}

¹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²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A Study on the Effects of Married Women's Intention of Childbirth

Sun-Kyoung Un¹, Hyo-Jin Park^{2*}

¹Division of Social Welfare, KC University

²Division of General Education, Hyupsung University

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결혼만족도, 자녀에 대한 가치관, 전통적 성역할, 저출산 관련 사회서비스 정책이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파악하고자 함에 있다. 기혼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였으며, 이 중에서 향후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482명을 대상으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인구사회학적 요인으로서 연령이 유의미하였는데, 연령이 낮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았다. 또한 가족에 관련한 변인을 보면, 자녀 수,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결혼만족도가 유의미한 변인으로서 자녀 수가 적을수록, 배우자가 가사노동에 할애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았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 출산지원 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는데, 잔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부여하고 있을수록,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가 낮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았다. 특히 정부의 출산지원정책에 대한 인지도는 출산휴가와 난임 지원에 집중되어 있었고 다른 정책에 대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출산의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성역할과 가사노동에 대한 배우자의 분담에 대한 인식의 개선과 인식변화의 이행을 위한 일-가정양립 지원체계의 강화, 그리고 난임지원에 대한 확대 및 저출산관련 서비스정책에 대한 홍보 강화가 필요하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women with the goal of analyzing whether times of spouses' housework, marital satisfaction, values of children and traditional gender role, and social services related to the reduction of low fertility contribute to women's intention to give birth. The respondents of the research were 1,000 married women, a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482 women of childbirth intention. The findings are as follows. Age of sociodemographic factors has an influence on the childbirth intention. Related to family's character, factors influencing childbirth intention are number of children, times of spouses' housework, and marital satisfaction. In addition, emotional and instrumental values of children, number of recognized public services for reduction of low fertility. In other words, the more women share housework with spouses and satisfy their marital life, the more childbirth intention of women is increased. In order to improve childbirth intention, changes of perception of gender role and sharing housework, reinforcement of social system for work and family compatibility that convert changes of perception into action, advanced marital relationship programs, extensive support for subfertility and a huge build-up of social services related to reduction of low fertility need to be provided.

Keywords : Intention of Childbirth, Low Fertility, Work and Family Compatibility, Sharing Housework, Value of children, Martial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Hyo-Jin Park(Hyupsung University)

email: imokurok72@gmail.com

Received February 28, 2020

Revised March 26, 2020

Accepted April 3, 2020

Published April 30, 2020

1. 서론

우리 사회의 인구증가율은 2018년 기준 0.23%로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인구증가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전국 시도중에서 인구증가율이 두자리를 나타내고 있는 곳은 세종시로서, 2018년 기준 12.26%를 나타내고 있지만, 이 또한 2015년 34.94%에 비하면 절반도 안되는 인구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의 많은 시도가 인구감소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울산광역시 -0.85%로 가장 높은 인구감소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전라북도 -0.80%, 대전광역시 -0.76%, 부산광역시 -0.75%, 서울특별시 -0.74%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광역시 단위의 인구감소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 뿐만 아니라 전국의 합계 출산율이 2000년 1.48명에서 2002년 1.1명대로 감소한 후 2010년부터 2012년 사이에 1.2명대로 다소 증가하였다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계속해서 감소했으며, 2018년에 1명에 미치지 못하는 0.977명으로 감소한 상황이다[2].

이와 같은 저출산 문제의 원인과 해결을 위한 연구들은 저출산의 원인으로 결혼기피 및 만혼현상, 가치관의 변화, 자녀양육을 위한 기회비용 및 경제적 부담 등을 꼽는다. 첫째로 결혼기피 및 만혼현상과 관련한 연구의 결과들을 보면, 혼외자녀가 낮은 비율을 차지하는 한국사회에서 혼인건수의 감소는 출산율에 중요한 요인이 된다[3]. 부부 한 쌍이 낳은 아이 수는 2016년에 평균 2.23명으로 2000년 1.7명보다 증가하였지만, 유배우율이 2000년 70.4%에서 2016년 51%로 감소하였는데, 이는 혼인건수가 출산율을 높이는데 한계로 작용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4-5]. 그리고 결혼연령의 증가도 저출산 요인이 되는데, 2018년 현재 초혼연령은 2010년의 초혼연령에 비해 전체적으로 4세 정도 늦어졌다[3,6-7].

둘째, 가치관의 변화와 관련하여, 부부가 자녀를 갖고 양육하는 일이 그들의 삶을 풍족하게 할 것이라고 느낄 때 출산으로 이어지는데[8], 타인을 위해 희생하기보다는 현재 자신이 누리는 행복을 위해 소비와 투자를 아끼지 않는 가치추구는 출산율을 감소시킬 수 있다. 실제로 자녀에게 얼마이기를 꺼리는 가치관을 가지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고[9], 이러한 가치관의 변화가 결혼과 출산을 망설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10] 자녀가 있는 집단의 전통적 가치관이 높게 나타난 것[11]과도 관련된다. 즉,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을수록 출산에 대한 의향이 높고, 자녀 자체를 즐거움이라고 생각하

는 정서적 가치관과 자녀를 세대계승과 경제적 도구로 생각하는 도구적 가치가 높을수록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높았다[8-10,12-15].

셋째, 자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인은 자녀 양육을 위한 기회비용 및 경제적 부담으로서,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예상되는 편익이 비용보다 크지 않다고 판단할 가능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출산을 하지 않는 경향으로 나타나게 된다[11,16-18]. 앞서 살펴본 가치관의 변화는 자녀에 대한 효용과 비용을 고려함에 있어 작용하게 된다. 즉, 자신의 행복추구를 중요한 가치로 추구하고 있는 세대에게 자녀는 부모의 희생이 필요한 대상이기에 희생하며 잘 키울 수 없다면 낳지 말아야 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10]. 이는 가구의 생활수준, 취업 및 고용불안,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은 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생활수준이 높을수록, 양육 및 교육비 부담이 낮을수록 자녀출산의 의지가 증가하며, 취업 및 고용불안을 인지할수록 자녀출산이 낮아진다[8,16,19]는 연구결과에서 뒷받침된다. OECD국가의 높은 출산율은 일-가족 양립을 통한 사회적 지원으로 인해 자녀양육을 위한 기회비용의 절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여성의 경제활동참여로 인한 소득증가를 추구할 수 있어 출산율 제고에 도움이 될 수 있다[18].

지금의 30대는 1980년대에 태어난 세대로서 밀레니얼세대라고 불리운다. 이들 밀레니얼 세대는 1955년에서 1964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 1970년대에 태어난 X세대와는 다른 경험을 가진 세대이다. 밀레니얼 세대는 자신들이 가진 능력 및 열망과 현실적 조건 사이의 괴리가 어떤 세대보다 큰 세대로서, 풍요롭게 성장했지만 빈곤한 사회생활을 해야 하는 세대, 능력을 갖췄지만 비정규직의 노동시장을 떠돌게 되는 세대로서 88만원 세대,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한 3포세대로 불리워지기도 한다[20].

실제, 30대 밀레니얼세대 기혼여성들의 출산율증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대안이 필요한가? 앞에 살펴본 바와 같이 밀레니얼 세대들은 미혼의 비율이 높고 초혼 연령은 늦어졌지만, 자녀수는 다른 세대와 큰 차이가 없었다[4-5]. 세대간 차이가 많이 나타나는 밀레니얼 세대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수에 큰 차이가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 연구는 밀레니얼 세대인 30대 기혼여성들을 중심으로 그들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함으로써 정책적 실천적 제안을 하고자 한다.

2. 본론

2.1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는 30대 기혼여성을 중심으로 30대 여성들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에서 실시한 '3040 여성들의 자녀출산과 양육경험' 자료를 활용하였다. '3040 여성들의 자녀출산과 양육경험' 데이터는 자녀수에 따른 쿼터를 정하여(자녀없음 250명, 자녀 1명 250명, 자녀 2명 400명, 자녀 3명 이상 100명), 30~40대 여성 1,000명을 대상으로 2019년 7월 19일부터 8월 12일까지 온라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실시한 '3040 여성들의 자녀출산과 양육경험' 자료에는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배경, 출산 및 양육경험, 가치관, 공적지원 정책 및 사적지원체계 이용정도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30대 기혼여성들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는 본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자료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이 실시한 '3040 여성들의 자녀출산과 양육경험' 자료 중 30대 기혼여성 482명을 선정하여 분석하였으며, 이 중에서 향후 출산 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20명(45.6%), 출산 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대상자는 262명(54.4%)으로 나타났다.

2.2 변수측정

본 연구의 목적인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측정하기 위하여 출산의향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활용하였다. 조사결과 향후 출산의향이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 향후 출산의향이 없다고 응답한 경우는 0으로 설정하여 종속변수로 사용하였다.

결혼만족도 척도는 수정된 캔자스 결혼만족도척도(Revision Kansas Marital Satisfaction Scale, RKMSSI) 문항을 활용하였다[21]. 이 척도는 4문항으로 구성된 리커트 척도로써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성역할태도를 묻는 문항은 여성가족부 가족실태 조사에서 사용한 문항을 활용하였다[22]. 성역할 태도는 6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4점 리커트 척도로 변환하여 활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 성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가치관은 2005년 이후 전국 결혼 및 출산동향조사와 아동패널 등에서 반복적으로 사용된 자녀에 대한 태도 6개 문항을 활용하였다[23].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를 묻는

문항 3문항과 자녀에 대한 도구적 가치를 묻는 문항 3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설명하기 위해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살펴본 후 이를 토대로 분석모형에 투입하였다. 독립변수는 인구사회학적 요인(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 여부), 가구 특성(가구원 수, 자녀수, 가구소득, 개인시간,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결혼만족도), 그리고 가치관(전통적 가치관, 자녀에 대한 정서적 및 도구적 가치관), 정부지원정책의 인지(출산지원정책의 인지 정도, 양육지원정책의 인지 정도, 일가정양립정책의 인지 정도)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2.3 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인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하여 출산의향 유무에 따라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참여 여부, 가구원수, 자녀수, 가구소득, 개인시간, 남편의 가사노동시간, 결혼만족도, 가치관 및 정부지원정책의 인지정도에 대해 교차분석과 t-test를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전제조건인 변인들 간의 다중공선성 여부를 확인한 후, 출산의향을 종속변수로 하여(출산의향 있음=1, 출산의향없음=0) 인구사회학적 변수, 가족특성 변, 가치관 및 정부지원정책 인지정도 변수를 순차적으로 분석에 투입하였다. 이를 통해 순차적 분석 투입에 따른 모형 설명력의 변화와 더불어 개별 변수들의 영향력을 살펴볼 수 있는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위한 통계분석에는 SPSS 21.0을 사용하였다.

2.4 연구결과

2.4.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사항

연구대상자인 30대 기혼여성들의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1, 2). 먼저 30대 기혼 여성의 교육수준은 출산의향 여부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에서는 대학교 졸업이 196명(74.8%), 고등학교 졸업 40명(15.3%), 대학원졸 26명(9.9%)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에서 대졸이 184명(83.6%), 대학원졸 21명(9.5%), 고졸 15명(6.8%)의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I

Variable		Absence of childbirth Intention	Presence of childbirth Intention
Education $\chi^2=8.681^*$	high school graduate	40(15.3)	15(6.8)
	college graduate	196(74.8)	184(83.6)
	graduate degree	26(9.9)	21(9.5)
Employment $\chi^2=2.874$	no	89(34.0)	59(26.8)
	yes	173(66.0)	161(73.2)
N		262(100.0)	220(100.0)

향후 출산의향 여부에 따른 연구대상자의 연령을 살펴 보면 출산의향 있는 집단의 연구대상자는 평균 33.58세,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은 평균 35.63세로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의 연령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원 수와 자녀수 모두 출산의향 여부에 따라 두 집단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자녀수의 경우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이 1.49명,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이 평균 0.54명이며, 가구원수는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이 평균 2.62명,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이 평균 3.54명으로 가구원수와 자녀수 모두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이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우 자녀출산에 대한 의향을 가지고 있지만, 자녀가 있는 집단의 경우 추가로 자녀를 출산할 의향이 없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월 평균 가구소득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자산소득 등을 모두 포함한 세전 금액으로 출산의향여부에 따른 통계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연구대상자가 연구대상자만을 위해 사용하고 있는 개인시간은 출산의향에 따른 두 집단에서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이 일주일에 평균 4.97시간으로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 3.70시간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배우자의 육아를 포함한 설거지, 청소 등의 가사노동시간은 출산의향여부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에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은 평균 1.71시간,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에서는 평균 1.55시간으로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이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결혼만족도 또한 출산의향 여부에 따른 통계적인 유의미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결혼만족도는 총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4점 만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결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분석결과,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이 평균 3.34점으로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 2.93점보다 결혼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Table 2. General Characteristics II

Variable		Absence of childbirth Intention	Presence of childbirth Intention
Age	mean	35.63	33.58
	S.D	2.52	2.46
Number of Children	mean	1.49	.54
	S.D	.89	.82
Number of Household	mean	3.54	2.62
	S.D	1.10	1.05
Income	mean	513.64	510.34
	S.D	248.89	208.41
Personal Time	mean	3.70	4.97
	S.D	5.71	4.12
Spouse's Housework Time	mean	1.55	1.71
	S.D	1.70	2.12
Marital Satisfaction	mean	2.93	3.34
	S.D	.76	.58
Traditional Gender Role	mean	1.98	1.97
	S.D	.49	.49
Emotional Value of Children	mean	2.15	2.27
	S.D	.48	.43
Instrumental Value of Children	mean	1.49	1.56
	S.D	.47	.51
Number of Recognized Public Childbirth Support Service	mean	5.81	5.95
	S.D	1.94	1.87
Number of Recognized Public Parenting Support Service	mean	6.95	6.34
	S.D	2.31	2.80
Number of Recognized Work and Family Compatibility Service	mean	4.95	4.88
	S.D	2.25	2.28
N		262(100.0)	220(100.0)

분석결과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의 전통적 가치관은 평균 1.97점,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의 전통적 가치관은 평균 1.98점으로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서적 가치는 출산의향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정서적 가치는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이 평균 2.27점으로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 평균 2.15점보다 높게 나타났다. 도구적 가치는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이 평균 1.56점,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이 평균 1.49점으로 정서적 가치와 도구적 가치 모두 출산

의향이 있는 집단에서 높은 값을 볼 수 있다.

정부지원정책에 대한 인지정도는 정부지원정책 중 알고 있는 정책의 개수를 통해 측정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출산지원정책의 인지정도는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태아 건강검진 허용,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정책 등 8개의 출산지원정책 중 연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지원정책의 개수로 측정하였다. 출산지원정책 인지정도는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이 평균 5.95개,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이 평균 5.81개로 두 집단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았다. 양육지원정책의 인지정도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지원, 육아시간(수유시간)허용, 공동육아 나눔터 운영, 아동수당 및 가정양육수당, 아이 돌봄 서비스, 유치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누리과정지원과 시간 연장형 보육료지원, 영유아 건강 검진비 지원 및 국가 예방 접종비 지원, 초등 돌봄교실, 다자녀가정 주택 특별공급,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등 영유아의료비지원 및 검사, 환아 관리지원 등 10개의 양육지원정책 중 연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지원정책의 개수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양육지원정책의 인지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이 평균 6.34개,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이 평균 6.95개를 인지하고 있는 것에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일·가정 양립정책의 인지정도는 직장어린이집, 육아휴직,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 유연근무제, 시간선택제일자리, 출산육아기 대체인력지원 및 고용 안정장려, 출산육아기 비정규직 재고용지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등 8개의 일·가정 양립지원정책 중 연구대상자가 인지하고 있는 지원정책의 개수로 측정하였다.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의 일·가정 양립정책의 인지정도는 평균 4.88개,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은 평균 4.95개로 나타났다.

2.4.2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요인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연구에서 활용할 독립변수들 사이에 지나치게 높은 상관관계는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독립변수들이 영향을 미치는 추정치를 왜곡시킬 수 있다. 따라서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이전에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분석을 통한 상관관계 계수의 크기 확인, 분산팽창지수(VIF), 공차한계(Tolerance)를 통해 다중공선성 정도를 살펴보았다. 본 연구에 투입된 독립 변수들간의 상관관계는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변수간의 상관관

계가 .484로 나타났다. 공차한계는 .217~.930으로 모든 변수에서 0.1보다 높은 수준으로 관찰되었으며, 분산팽창요인의 최대치는 4.613으로 나타났다. Durbin-Watson 값은 1.940으로 잔차의 독립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로 인하여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보기 위한 연구모형의 추정이 왜곡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출산의향의 영향요인을 인구사회학적 특성, 가족관련 특성, 가치관 및 정부지원정책인지정도 특성으로 구분하여 로지스틱 회귀모형에 차례로 투입하여 위계적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30대 기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요인인 연령, 교육수준, 경제활동 유무만을 투입한 1단계 모형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x^2=74.237^{***}$, $p<0.001$),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변량 중 약 19.1%(Nagelkerke $R^2=.191$)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인구사회학적 요인 중 연령($\text{Exp}(\beta)=.733$, $p<0.001$)은 출산의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출산의향이 26.7% 감소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만 35세 이상의 임신부는 고령임신으로 임신중독증, 난산, 조산, 임신성 당뇨, 기형아 출산 등의 여러 임신 합병증이 증가하기 때문에 연령이 높아지면 출산 의향도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1단계 모형에 가구원수, 자녀수, 가구 소득, 개인시간, 남편의 집안일 시간, 결혼만족도 등의 가구특성을 살펴볼 수 있는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투입한 2단계 모형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x^2=181.612^{***}$, $p<0.001$),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변량 중 약 42.0%(Nagelkerke $R^2=.420$)를 설명하고 있어 1단계 모형의 설명력 19.1%보다 설명력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2단계 모형의 분석결과, 1단계 모형에서 유의미한 설명력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던 연령($\text{Exp}(\beta)=.781$, $p<0.001$)과 자녀수($\text{Exp}(\beta)=.231$, $p<0.001$), 남편의 집안일시간($\text{Exp}(\beta)=1.121$, $p<0.05$), 결혼만족도($\text{Exp}(\beta)=1.816$, $p<0.01$)가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에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연령이 많을수록 출산의향은 약 21.9% 감소하며, 자녀수가 많을수록 출산의향 또한 72.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편이 육아를 포함한 설거지, 청소 등의 가사노동을 분담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출산의향이 12.1% 증가하며,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81.6%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자녀는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출산 의향이 크게 감소하며, 배우자와의 관계가 좋

Table 3. Hierarchical Logistic Regression results for Women's Intention of Childbirth

(N=482)

Categories	Variables	Step 1			Step 2			Step 3		
		β	Wald	Exp(β)	β	Wald	Exp(β)	β	Wald	Exp(β)
Socio-demographic Character	Age	-.311	60.794***	.733	-.247	29.328***	.781	-.263	29.810***	.769
	Education	.094	.433	1.099	.028	.030	1.029	-.036	.045	.965
	Employment	.133	.365	1.142	-.149	.306	.862	-.038	.018	.963
Family Character	Number of Household				.361	3.263	1.435	.354	2.642	1.425
	Number of Children				-1.465	32.715***	.231	-1.757	37.480***	.173
	Income				.000	.446	1.000	-.001	1.250	.999
	Personal Time				-.028	1.412	.973	-.025	1.172	.975
	Spouse's Housework Time				.115	3.658*	1.121	.142	4.602*	1.152
	Marital Satisfaction				.596	11.695**	1.816	.542	7.499**	1.720
Value and Public policy	Traditional Gender Role							.238	.632	1.268
	Emotional Value of Children							.771	6.683*	2.162
	Instrumental Value of Children							.806	6.214*	2.240
	Number of Recognized Public Childbirth Support Service							-.204	6.040*	.815
	Number of Recognized Public Parenting Support Service							.072	1.017	1.075
	Number of Recognized Work and Family Compatibility Service							-.001	.000	.999

고 배우자가 집안일에 참여하는 시간이 많을수록 출산의향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3단계 모형은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가구특성에 추가적으로 가치관 및 정부지원정책 인지정도 특성을 투입하였으며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을 설명하는데 유의미한 통계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chi^2=219.034^{***}$, $p<0.001$), 30대 기혼여성의 출산의향 변량 중 약 48.8% (Nagelkerke $R^2=.488$)를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단계 모형에서는 2단계 모형에서 유의미한 영향력을 보였던 연령(Exp(β)=.769, $p<0.001$), 자녀수(Exp(β)=.173, $p<0.001$), 남편의 집안일시간(Exp(β)=1.152, $p<0.05$), 결혼만족도(Exp(β)=1.720, $p<0.01$)와 가치관 및 정부지원정책 인지정도 변수 중에서 정서적 자녀가치관(Exp(β)=2.162, $p<0.05$), 도구적 자녀가치관(Exp(β)=2.240, $p<0.05$), 출산지원정책 인지정도(Exp(β)=.815, $p<0.05$)가 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치관 및 정부지원정책 인지정도 특성 중 정서적 자녀가치관이 높아질수록 116% 출산의향이 높아지며, 도구적 자녀가치관 또한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124%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출산지원정책 인지도는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18.5%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지원정책은 배우자 출산휴가, 난임부부 시술비지원,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태아 건강검진 허용, 유산사산 휴가 및 급여, 출산전후 휴가급여,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정책 등의 정책으로 자녀가 이미 있는 여성일수록 인지할 가능성이 높은 지원정책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자녀를 이미 낳은 여성일수록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인지할 가능성이 높아 이러한 결과를 나타난 것으로 해석해볼 수 있다.

3. 결론

본 연구는 밀레니얼세대로 구분되는 30대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밝히고자 하였고, 주요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자녀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의 평균자녀수, 평균연령, 가사노동시간은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에 비해

낮았다. 또한 자녀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은 개인여가시간,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결혼만족도, 자녀에 대한 정서적 가치가 자녀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에 비해 높았다.

자녀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의 평균자녀수가 1.49명인 점을 볼 때, 30대 기혼여성의 경우 자녀를 1명 이상 출산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30대 기혼여성들은 자녀를 두는 것을 가치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정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향이 있지만, 실제 자녀양육을 위해 자신의 삶이 방해받거나 옹매에게 되는 일이 생기는 것은 원치않는 경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30대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향은 배우자의 가사노동참여, 자신의 개인여가시간, 결혼만족도와 같은 자신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이 보장될 때 높아질 수 있다.

자녀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이 출산지원정책인지가 높을수록 출산의향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는 출산후가, 임신부 철분제 및 엽산제 지원, 태아건강검진,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지원과 같은 정책의 서비스를 받기 위해 출산을 결정하지는 않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고, 출산지원정책 중 난임부부의 시술비 지원만이 출산의향이 있는 30대 기혼여성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원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출산의향이 있는 기혼여성에게 난임 지원은 의미가 있을 것이지만, 다른 정책의 영향은 미미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30대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연령, 자녀수, 남편의 가사노동 시간, 결혼만족도, 자녀가치관로 나타났다. 실제 자녀수의 경우 출산의향이 없는 집단의 평균자녀수는 1.49명, 출산의향이 있는 집단의 자녀수는 평균 0.54명으로 나타난 점을 볼 때, 자녀가 없거나 1명인 경우 출산의향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난임으로 인해 출산의향이 있지만 자녀수가 없는 집단에 대한 지원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남편가사노동시간, 결혼만족도, 자녀가치관의 영향이 중요하다. 남편의 가사노동참여가 많고, 결혼만족도가 높을수록 자녀출산의향이 높다는 연구[11]과 남편의 가사노동이 많아질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아진다는 연구결과[24]가 있다. 자녀를 양육하면서 부부가 함께 가사노동을 분담하며 결혼만족도가 증가하게 될 때 자녀출산의 의향이 높아질 수 있고, 1명 이상의 자녀를 출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30대 기혼여성의 자녀출산에 대한 의향을 높이기 위해서는 일가정 양립, 양성평등 정책 등이 실질적

으로 체감될 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저출산고령화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출산율에 유의미한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양성평등, 일가정 양립의 정책에 대한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하며, 특별히 정책이 어떻게 실제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홍보가 필요하다. 특히 육아휴직의 실질적 이용, 유연근무제의 활성화 등에 대한 제도적 보완과 장려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고, 이러한 제도에 대해 알고 있지만 이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부정적 인식이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제도로의 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긍정적 이용경험에 대한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References

- [1] KOSIS. Population Growth Ratio.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3_01&vwcd=MT_GTITLE01&parmTabId=M_01_03_01#SelectStatsBoxDiv (accessed Jan. 20, 2020)
- [2] KOSIS. Total Fertility Rate http://kosis.kr/statisticsList/statisticsListIndex.do?menuId=M_01_03_01&vwcd=MT_GTITLE01&parmTabId=M_01_03_01 (accessed Jan. 20, 2020)
- [3] S. K. Un, H. J. Park, 3040 Married Women's Experience of Childbirth and Parenting, ChildFund Korea, Korea, pp.19, 2019.
- [4] Y. M. Choi, Y. H. Park, "Analysis of Perception of Marriage and Birth and the Pattern of Low Birth Rate", *Citizen and Humanities*, Vol.36, pp.101-137, Feb. 2019.
- [5] C. H. Lee, "Decomposition of Change in the Total Number of Birth and Future Projections", *Journal of Korean Economic Analysis*, Vol.25, No.1, pp.37-91, Apr. 2019.
- [6] J. Y. Seo, *Factors Influencing Married Women's Childbearing Willingness Based on Number of Children-ever-born*. Ph. D. Theiss. Yeungnam University, Gyeongbuk, Korea, 2015.
- [7] S. K. Kim, "Change in Fertility Rates in Korea: Causes and Future Prospects",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Korea*, Vol.27, No.2, pp.1-34, Dec. 2004.
- [8] Y. A. Park, *The Study on the Effective Element of Pregnancy Will*. Ph. D. dissertation, Hansung University, Seoul, Korea, pp. 17-19, 2013.
- [9] S. K. Jeon, "Exploring the Causes and Overcoming of Low Fertility in Terms of Family Culture and Value Education", *Korean Home Economics Education Association*, Vo.,29, No.4, pp.85-100, Dec. 2017. DOI: <https://doi.org/10.19031/jkheea.2017.12.29.4.85>
- [10] H. Y. Kim, B. Y. Sun, S. D. Kim, Women's Late

Marriage and Low Fertility, Korean Women's Development Institute, Korea, 2010.

[11] S. L. Kim, *The Effect of Family Values, Marital Characteristics, and Birth Policy on Childbirth Intention of Married Person*. Ph. D. Dissertation, Kukje Theological University and Seminary, Seoul, Korea, 2018.

[12] Y. H. Jung, H. J. Kim, S. H. Jung, "A Study on Factors Affecting Family Planning Decisions of Mothers Who Have 2 Year Old Children: Focusing on Parents' Values on Children and Characteristics of Couples", *The Korean Journal of the Human Development*, Vol.20, No.2, pp.185-203, June. 2013.

[13] C. H. Park, "The Effects of Child Care Support, Value of Children and Psychological Well-Being Second Childbirth Plans for Employed Mothers with an Infant of 10 Months or Younger",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1, No.1, pp.95-111, Feb. 2012. DOI: <https://doi.org/10.5934/kjhe.2012.21.1.95>

[14] J. W. Lee, "A Pathway Analysis on Determination of Intention of Second Childbirth in Working Women with a Child: Focused on Value Factors", *Korean Journal of Social Welfare Studies*, Vol.40, No.1, Mar. 2009. DOI: <https://doi.org/10.16999/kasws.2009.40.1.323>

[15] M. J. Ma, "An Exploratory Study on the Intention and the Avoidance of Second Childbirth of Working Couple", *Korean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5, No.1, pp.75-116. Jan. 2008.

[16] S. Y. Won, Y. H. Choi, "The Determinants of the Fertility Rate of Local Government in Korea: Focusing on Factors Related to the Cost for Children", *The Korea Association for Policy Studies*, Vol.27, No.3, pp.231-268, Sep. 2018.

[17] J. Y. Hwang, "Does Female Labor Force Participation Affect the timing and Level of Fertility Rate? A Cross-Country Analysis", *Health and Social Welfare Review*, Vol.33, No.3, pp.361-384, Sep. 2013. DOI: <https://doi.org/10.15709/hswr.2013.33.3.361>

[18] A. H. Gauthier, "The Impact of Family Policies on Fertility in Industrialized Countries: A Review of the Literature. Population Research and Policy Review, Vol.26, No.3, pp.323-346, June, 2007. DOI: <https://doi.org/10.1007/s11113-007-9033-x>

[19] D. Y. Byun, *Predictors of Fertility-Intention Among the Married Man andn Women: Utilization of the Theory of Planned Behavior*, Master's thesis, Konkuk University, Chungju, Korea, 2015.

[20] S. B. Choi, *Generation Chronology in Korea: Self-Portraits of Intercultural Generations and Cultural Conflicts*, Ewha Womans University Press, Korea, 2018.

[21] J. Y. Bae, *Actor-Partner Effects on Marital Satisfaction, Happiness,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mong Father and Mother with Young Children*. Ph. D. di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 43-45, 2018.

[22]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The National Survey of Korean Families (NSKF). Seoul, 2010.

[23] W.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Women's Values of Children and their Intentions for Subsequent Childbirth: Focusing on Moderating Effects of Birth Rate Policies*. Ph. D. diissertation, Gachon University, Sungnam, Korea, pp. 84, 2018.

[24] Y. Lee, "Childbirth and Change in Marital Satisfaction of Wives: The Mediating Effects of Changes in Leisure with Hsbands and in Their Housework",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24, No.4., pp.519-538. Dec. 2019.

은 선 경(Sun-Kyoung Un)

[정회원]



- 1998년 8월 : 송실대학교 일반대 학원 사회사업학과 (문학석사)
- 2010년 2월 : 송실대학교 일반대 학원 사회복지학과 (사회복지학박사)
- 2009년 3월 ~ 2013년 2월 : 백석 예술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 2013년 3월 ~ 현재 : K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조교수

<관심분야>

아동청소년, 가족, 여성

박 효 진(Hyo-jin Park)

[정회원]



- 2006년 8월 : 송실대학교 일반대 학원 사회사업학과(문학석사)
- 2010년 2월 : 송실대학교 일반대 학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박사)
- 2011년 9월 ~ 2014년 2월 : 서울 제일대학원대학교 조교수
- 2015년 3월 ~ 현재 : 협성대학교 교양교직학부 외래교수

<관심분야>

소득보장, 일-가족양립, 돌봄노동